

1. 준비단계

우선 연출을 하기로 확정한 날이 12월 30일인데, 최근 공연 중에서는 그래도 빨리 결정을 내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강총회가 12월 말 즈음이었었는데 회장들이 12월 말 일까지는 확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더 늦어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30일을 기점으로 겨울 스케줄을 모두 정리하고 115회 연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주일 동안 첫 연습을 준비했고 이 준비기간을 가진 것이 1월 한달 동안의 연습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동안 연출을 해보신 선배님들께 연락을 해서 이번 115회 연출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배님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해주셨고 연출로서 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출의 카리스마를 갖추고 하고 싶은 말은 꼭 할 것, 대본 읽으면서 첫 그림을 그리며 상상하기 등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공연 연출님들이 남긴 자료들을 찾아보며 연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94회, 98회, 105회 합평회 자료와 111회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자료를 특히 많이 참고했습니다. 알고 있는 트레이닝도 있었고 모르는 트레이닝도 있었는데 트레이닝 세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약간 변형해가며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자료로 1주차, 2주차 트레이닝 계획표를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탭진들을 꾸리고 역할 배분을 하며 연출로서 스탭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들을 정리하는 스탭진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특이했던 점은 조연출인 영진이가 다양한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인데 애초에 조연출을 2명을 두었던 이유가 제가 스탭적인 부분에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스탭진 가이드를 만들어서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하려고 했고 아예 처음부터 영진이에게 스탭 쪽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초반에 제가 원했던 역할 분배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향, 조명, 의소분의 디자인과 컨셉,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와 논의하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에 직접적인 설치나 장비 관련, 극장 관련 일들을 조연출이 많이 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각 스탭진 팀장들이 이 역할을 수행해주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랬다면 역할 분배가 더 잘 되었겠지만) 아마 57기라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출진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연습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본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대본집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며 최대한 많은 자료를 끌어모았고 그 중에서 각자 마음에 들었던 대본을 공유하며 의견을 통합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연습 시작 전 주에 대본 이야기를 한 것이 이번 공연 전체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본 얘기를 할 때 무대 감독인 영현이도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전 회의를 할 때 공연 경험이 많은 극회인이나 공연진 중 키스텝이 이 과정에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캐스트 연습

-연습 초반 1월

1월 한달은 기초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으로 설정을 해두었는데 생각보다 연습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설 연휴를 빼고 나면 남은 기간이 2주 남짓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캐스트들이 여행을 가느라 많이 빠져서 완전체인 날이 1월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야 하는 사람 위주로 하루 단위 스케줄을 조정했고 (ex. 창기가 다음주에 못 오니까 창기는 다른 친구들이 다음주에 할 독백 미리 준비해 오세요) 그 결과 준비했던 트레이닝을 웬만하면 다 한 번씩 해볼 수 있었습니다. 캐스트의 스케줄과 관련한 부분은 한 달치를 미리 받아서 우주 조연출님이 정리해주고 제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월 목표 중에 서로 친해지는 것도 있었는데 다들 한 번씩은 빠지다 보니 과연 다 같이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한 명씩 빠지다 보니 완전체에 대한 갈망(?)이 다들 커졌고 그래서

처음으로 연출진+캐스트가 모두 모였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새롭게 연습 분위기를 재정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 바로 대본에 들어가려고 생각 중이었기 때문에 1월 중에 대본 작업도 미리 마쳐놓았습니다. 대본을 빨리 선정했기 때문에 각색을 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거의 6, 7차까지 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1월 이후에도 연습 중에 대본이 자잘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스태프들과 중간 중간 공유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연습 중반 2월

1월에 재미있는 트레이닝을 많이하고 친목도 많이 다져놓아서 2월 연습 분위기는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월 1일 완전체가 되었을 때 바로 대본을 배부하고 오디션을 보아서 장면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었습니다. 2월 첫주 동안 대본 분석을 하고 둘째주부터는 각 장면의 목표를 찾고 즉흥을 해보면서 장면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셋째주부터는 대사를 완벽히 익히고 동선과 구도 및 대 도구, 소 도구 위치를 차츰 픽스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새터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장면연습을 하고 나들이도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2월은 연출진들과 캐스트들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습시간이 물리적으로 늘어난 것도 그 이유겠지만 생각보다 연기가 잘 안되거나, 연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름 치열하게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디테일을 살릴 때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고민, 장면이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두번째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습 후반 3월 (개강 후)

캐스트 친구들에게 미안했지만 개강 후 첫 주는 원래 연습하던대로 10시부터 밤까지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야도 한 번 더하게 되었는데 디테일을 더 잡을 수 있어서 연출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강 후에도 모여서 계속 런스루를 하고 이런 저런 시도를 해본 것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3. 스태프

-무대

무대팀은 제가 딱히 스케줄을 확인하거나 우려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한에 맞게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없어서 편했고 무대 디자인이 중간에 바뀐 것도 최대한 반영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무대 설치 때도 모든 팀원이 참여해서 빠르게 일을 끝냈고 무대감독이 없어도 다른 친구들이 보수도 잘해주고 성실히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1차 스태프 회의 때 였나 연습 초반에 무대 컨셉이 확정이 되고 디자인이 나왔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빠르게 확정 되니까 일이 쉽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캐스트 연습할 때 구도를 생각하기도 좋고 조명팀이 디자인 짜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대팀은 다른 팀보다도 컨셉과 디자인이 빨리 확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

조명팀은 설치 때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급하게 일을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 해주었습니다. 잘 모르고 힘들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만 급하게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사전에 준비를 많이 못한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부품 구입과 사전 작업을 설치 당일날 해야 했던 점 (명륜 설치 때), 극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 등이 급하게 일을 하게된 원인이었는데 다음에는 설치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끝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극장을 미리 가보는 것은 제반사항 파악할 때 모두 마쳐야 하고 공연 일주일 전에도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영출님이 명륜 때 라인 변환을 해야된다는 거를 설치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말해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영출이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조명팀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인변환에 필요한 부품이 없다는 것도 영진이가 설치 당일 3시에 말해줬는데 영진이가 없었으면 조명팀이 어떻게 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라인 변환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도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등 조명팀의 후속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일처리 하는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무대, 조명, 음향 등 스태프적인 것들은 특히나 인수인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이 부분은 기획이 책임지고 인수인계서를 배부 하거나 이전 공연진들을 연결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명 오퍼에 신경 쓸 부분이 꽤 있었는데 그게 연습 중간에 조명팀에게 전달이 잘 안 된 것도 아쉬웠습니다. 카톡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연습을 자주 보러왔으면했는데 런스루 할 때도 조명 팀원들이 연습을 많이 못 본 게 아쉽네요.

-음향

음향도 좀 급한 감이 있었지만 막판에 연습을 거의 매일 보러와서 큐를 미리 맞춰본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캐스트들도 런스루 할 때 음향이 있으면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했는데 연습을 많이 온 게 캐스트에게도, 음향팀에게도, 연출진에게도 좋았습니다.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음향팀이 설치 때도 작업할 게 없고 스태프 회의 와서도 다른 팀과 공유할 게 거의 없긴 했지만 공연진과의 교류가 더 많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소분

이번 공연이 의상, 소품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구할 게 굉장히 많았을텐데 역시나 끝까지 책임지고 제 역할을 다 해줘서 감사했습니다. 교복, 아저씨 잠바 등 구하기 쉽지 않은 것들도 미리 척척 구해다주고 거의 못 구하는게 없다시피.. 인형극 때문에도 만들 게 많았을 텐데 미리 콘티를 짜서 컨펌을 받고 인형을 만들어서 거의 착오 없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출과의 소통이 잘 되었고 제가 미리 부탁한 중요한 소품들은 빠르게 구해다 주셔서 장면연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획

기획팀은 제가 신경 쓸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해주었습니다. 선배님들께 연락을 많이 돌린 것도 이번 공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팀 매뉴얼에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추가해서 다음 기획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명륜 원형극장 열쇠를 기획이 받았다면 내부적인 소통이 잘 되었을 것 같은데 원형극장 열쇠를 공연진이 아닌 선준이가 받아서 소통하기 좀 어려웠던 점 입니다. 또 스태프들이 극장 확인을 했는지, 인수인계를 잘 받았는지도 확인했다면 조명팀 역시 급하게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설치 때 도와줄 선배님이 없다가,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기획이 스태프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파악하는 감시자 역할과 이전 공연진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대본 관련

대본을 어떻게 정하게 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대본에 관한 얘기도 조금 하자면, 일단 연출진들과 대본을 찾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대본을 찾았고 연보도 보면서 일단 자료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때 능라촌 연보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능라촌이 공연은 못하는데 매번 대본은 잘 골랐다는 평가를 들어서 대본 선정이 문제라면 능라촌의 연보를 한번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기도 하고 도서관에 있는 희곡집을 여러권 빌려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B성년>이라는 희곡집이었는데 청소년극이 여러 개 수록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워크샵 작품으로 할 만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개천의 용간지>가 가장 눈에 띄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눈독을 들여온 <육조 속의 언어>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이 작품은 일단 인물들의 비중 차이가 너무 크고 한 장면에 2명, 3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대공연으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

겟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본 공연은 <개천의 용간지>로 하고 아쉬운대로 <육조 속의 인어>는 연습 대본으로 잠깐 활용해 보았습니다. 워크샵 때 <육조 속의 인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의 특이점은 대본을 각색 했다는 것인데 일단 작가님께 연락을 드려서 각색 허락을 받은 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공연이든 각색을 하게 된다면 작가님의 허락을 꼭 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각색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개인적인 반성

제가 일을 할 때 남에게 잘 말기지 못하고 제가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연출진과의 소통이 초반에 많이 없었습니다. 연출진 회의 이후에 저 혼자 연습계획을 짜고 대본분석을 했는데 이게 연출진과 공유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연습이 좀 진행된 이후에야 연출진과의 의견 공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회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영진이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갠톡으로 저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우주와는 상대적으로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사실 캐스트보다 연출이 더 큰 에너지로 연습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제가 평소에 엄청난 에너지아이가 아니다 보니 캐스트들이 에너지를 낼 때 좋은 본보기가 못 된 것이 아쉽습니다. 또 아닌 건 최대한 빨리 넘기고 더 좋은 걸 찾으려다 보니 '컷'을 많이 외쳤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많이 내준 캐스트들과 조연출님들께 감사합니다.

좋았던 점은 연습 분위기가 매우 좋았던 점,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로 연습에 임해준 점, 간식이 많았던 점, 선배님들이 많이 오셨던 점이 좋았습니다.

115회 정기대공연 연습 일정 (1월 1주차, 1/11 수~ 1/15 일)

<1월 월간 목표>

- 배우들의 신체적 능력의 향상, 발성, 발음 능력의 향상
 - 무대 위에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얻는다
 - 신체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몸 풀기)
 - 무대 위에 모습을 관여이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몸 열기)
 -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소리가 무대 전체에 들릴 수 있도록 한다

2. 배우들의 연기적 표현력의 향상

- 역선, 리액션의 적절한 표현을 가능하도록 한다
- 대사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객과 약속된 무형의 오브제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마킹)

3. 적절한 대본의 선정 및 분석

- 캐스트 숫자에 맞고 연극대 표현이 적절한 대본을 선정한다
- 극의 주제 및 표현의 개별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 대사를 완전히 읽는다
- 연습 대본을 통해 대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1월 연습 계획>

	1/11 수	1/12 목	1/13 금	1/14 토	1/15 일
	공연목표달성 신체 트레이닝 호흡, 발음, 발성 기호트레이닝 (재능발동)	신체트레이닝 호흡, 발음, 발성 기호트레이닝 나이에대하여 감각훈련	신체트레이닝 호흡, 발음, 발성 감각훈련 AB성함극 사생활알차기	영화보기	
1/16 월	1/17 화	1/18 수	1/19 목	1/20 금	1/21 토
신체, 호흡, 발성 기호트레이닝 감각훈련, SPA 생활극	신체, 호흡, 발성 감각훈련 생활극 독백	신체, 호흡, 발성 생활극 독백 연극/영화	신체, 호흡, 발성 독백 연기관행 감정의기억	신체, 호흡, 발성 독백 연극연습 (물 연연습)	MT
1/23 월	1/24 화	1/25 수	1/26 목	1/27 금	1/28 토
신체, 호흡, 발성 기호트레이닝 대본분석/발명	신체, 호흡, 발성 연습대본분석 독백해보기	신체, 호흡, 발성 생활극 연극/영화	신체, 호흡, 발성 대본해부, 분석 대본리딩	상연후 전사, 인물분석 대사외우기	상연후 인물연어
1/30 월	1/31 화				
대체휴일	대본분석				
					상연후 세브렉스프 장면분석

*기타 트레이닝: 냄새 물으로 표현하기, 물 물으로 표현하기, 신문 읽기, 심대 배우기, 그림 물으로 표현하기
*음악: 에너지 떨어뜨리기, 일 때도 놀자, 해보자, 하얀 벽은 것 없이 일단 해보기, 대답하기.

<세부 연습 계획>

연출 0

1/11 수요일		
시간	트레이닝 내용	준비물
10:00 ~ 11:00	<p>청소 및 어이스 브레이킹 <갈매를 찾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습 공간인 물이 용거운 공간임을 인식시켜주는 트레이닝 + 청소 각자 이름이 적힌 종이를 벽면 시간 내에 찾아 정해진 구역 청소하기 각자 무슨 색깔의 종이를지 선택하기 가장 빠르게 갈매를 찾아서 청소를 마친 사람에게 상 주기 *매상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기 <p>자기소개하기 <별명 자기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번, 학과를 빼고 자신을 소개하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학번, 학과, 나이 등 일반적으로 자기소개할 때 사용되는 정보를 빼고 '명종재종', '희강강한' 자립 앞에 수식어를 붙여 자신을 소개하기 ex. 마왕 소용, 도끼 망진 (자신만이 공간 안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든지 소개하기) <p>공연 목표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에서 생각했던 공연 목표 서로 얘기해보기 	<p>갈매 제일 빨리 잡은 사람 칭찬 사주기</p> <p>갈매를 찾아라 때 에너지 올릴 수 있는 노래와 짧은 음악 들어주기</p>
11:10 ~ 12:00	<p>신체 트레이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운동 (복, 발, 허리, 다리) 리치 다 잡기 50개 팔굽혀펴기 15개 스쿼트 10개 (무릎관으로, 앞다미 뒤로 빼기, 무릎에 발 나가지 않게) (2세트) 복근 운동: 레그리프 10개, 뒷굽힐오르기 (2세트) 플랭크 1분 + 교양이 자세 스트레칭 블로그 누워서 릴렉스하기, 천천히 일어나기, 중립 배우기 	
12:00 ~ 13:00	<p>휴식시간</p>	
13:00 ~ 13:30	<p>휴식 및 <독백>, <물주머니 찾기>, <사친하기>, <공원지기>, <무궁화>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 식사 후 놀이감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독백을 할 일이나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몇 개 해보기 	물주머니 또는 우유팩, 작은 공
13:40 ~ 14:30	<p>호흡 트레이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극물 풀기 (수축, 팽창, 입 주무르기, 콩대 누르기, 텀, 허 집기 등) 자세 호흡 (상체 킬 풀기, 숨 크게 들이마시기 등) <p>발성, 발음 트레이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성 기간 설정 연극, 연극 연구에 지는 느낌 	발성 기간 자료, 발음 연습 예문
14:40 ~ 15:10	<p>숙달 내뽐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하심 내려놓기, 노래하는 감정 표정하는 방법 관찰하기 두 열목 찍어서 보이는 것 모두 생일로 알려보려고 하기 	
15:30 ~ 16:10	<p>노래 가사 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텍스트에 노음을 달는 경험 읽기, 사할을 앞에서 노래부르며 부끄럼 제거 준비한 노래 문, 벽자 앞에서 부르기 (노래 준비하고 고를 시간 주기) 문을 빼고 가사만으로 노릴 힘보기 텍스트에 달린 감정, 상황 상상해보기 	노래가사 읽기, 세 남승
16:20 ~ 16:50	<p>휴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연습을 하며 느낀점, 앞으로 하고 싶은 것, 기대 등 소감 나누기 숙제 나누기 	숙제: 나의 장단점, 작은 물건으로 하는 행동 (마임으로) 준비하기

3/25 합평회

스텝

의소분

- 작은 물건들 잘 챙기기
- 의소분 가져온 가방도 잘 챙기기
- 분장 도구들 개인 껌로 쓰는데 막 다뤄지는 게 속상
- 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무대

- 책상 같은 대도구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있으면 좋겠다
- 울전 -> 명륜에서 용달 보낼 때 벽 하나 안오고 대도구 몇 개 안오고 한 거
- 벽이 기울어져 있었다, 불안함, 찝찝함
- 용달 명륜에서 받을 때 사람 너무 많은 시간에 받아서 의도치 않게 사람 치고 그랬다

음향

- 동휘: 두번 째 캐스트데 음향이 장면연습을 보러 안왔는데 이번에는 자주 왔었다, 좋았다
- 울전 때 극장 체크 했는데 스피커 문제로 기획한테 문의 했는데 해결 못드려서 죄송했다 -> 학생지원팀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기!

조명

- 극장 처음 가본 거
- 인수인계 잘 안된 점, 조명팀 인력이 없었다
- 스텝 워크샵을 하자!!!**
- 감독이 있으면 좋은 것 같다, 권한을 부여해서 일 분배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팀장을 만드는게 좋은 것 같다

*무대 설치 때 캐스트들 오면 안되는데 용달이던 설치던 캐스트들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명확히 되었으면

*울전 -> 명륜에서 옮길 때 체계화 되어 될 것 같다, 조명 옮길 사람 급하게 구하고 하는 거 위험할 듯

*공지방 있으면 좋겠다

*서로 마음 상한게 있으면 중간에 한 번 말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오퍼 전달에 핑크내는 경우! 높

캐스트

창끼

- 공연에 참여하는 순간 자기 희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즐거운 순간도 있었는데 몸과 마음이 힘들었다
- 다음 캐스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 고생하는 것에 비해 얻어가는 것이 크다!,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게 너무 좋았다
- 캐스트를 하면 나 스스로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었다
- 스텝적인 일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정보가 오면 좋겠다
- 마음 속으로 감사하다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해주셔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 >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 즐거운 분위기에서 연습하되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준 연출진
- 환경의 승리? 연출진과 캐스트들 간의 대화가 많았고 즐기는 분위기가 좋았다
- 활발한 분위기가 이어지면 좋겠다

지현

- 스텝들과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다, 소속감도 생기고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스텝은 친해질 기회가 없는 것 같다, 캐치에 스텝과 친해지기 항목이 있었는데 그러질 못했다
- 캐스트가 갑처럼 느껴지는 것도 안 친해서 그런 것 같다, **친목 도모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현우

- 좋은 추억 목표 달성, 배우로서의 재미와 가능성은 반반? 공연 순간에는 재밌었는데 연기 잘 안될 때는 힘들었다

정구

-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아서 좋았다
- 개선되면 좋은 점, **올전 공연 때 너무 추웠다**
- 동방 위생 상태 개선되면 좋겠다, 공기청정기

동휘

- 대공연 두번 째 캐스트, 스텝 하려고 했는데 저번 공연 때 아쉬운게 많아서 캐스트 하기로 했다, 저번 공연 때 아쉬운 거 모두 채웠다 싶을 정도로 좋았음
- 캐짱으로서 많이 못 이끌어준 거 같아서 미안하다, 으쌰으쌰 하는 게 없었다
- 연출님이랑 캐스트랑 친한 건 좋은데 피드백 줄 때 떠드는 거
- 스텝들이랑 친해지기 어렵다고 했는데 **스텝이 연습을 많이 보러와야 된다고 생각함**, 스텝이라도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임! 연습 분위기나 장면 연습 내용을 알아야 캐스트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음!
- 환경의 승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선배님들 많이 오셔서 좋았다, 감사하다

민주

- 장면 연습을 보러오는 스텝이 한정적이어서 아쉬웠다
- 스텝들이 동방에 자주 오면 좋겠다**, 안면을 트게 된다
- 연출진, 캐스트가 신체도 같이하고 뭐든지 다 같이 하는게 좋았다**, 우리랑 함께 해주고 있다는 의식이 도움이 되었다
- 다음 캐스트에게: 방학을 바치는데 학기 초에 수업 빠지게 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전공 진입하는 경우 속상할 때가 있었다, 알고 시작했지만 속상했다,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다**
- 스텝들이랑 캐스트 사이의 갑을 관계? 지난 번에는 캐스트들이 무대 작업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캐스트들이 무대팀 도와 줌, 힘든 일은 스텝이, 캐스트는 몸 사려야 된다는 게 은연 중에 있었다
- 원래 스텝 일을 캐스트들이 해야 했던 것도
- 초반에는 배우 일지 많이 쓰는데 나중에는 안 쓰게 되더라, **배우일지 꼭 끝까지 쓰기!**

기획

별

- 스텝들이 자신의 분야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다, 내가 할 일 빼고는 안 해도 돼, 포스터 붙이기, 연락 문제 같은 경우 스텝들의 난 안 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다
- 투표보다 간톡을 돌리는 게 빠르다고 느낄 정도로 투표를 안하더라 -> **투표를 잘 하자!**

세원

- 스텝들이 도와야 된다는 게 은별이와 같은 생각, 조명만 조명일 하면 못하고 무대만 무대 일 하면 못함
- 내 공연이라는 생각 있어야 될 듯, 공연진 전체가 이 공연 잘 되길 바란다면 자발적으로 했을 것
- 공연진들이 이건 내 공연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선배에게 연락하는 거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안 그래도 된다!

조연출

우주

- 목표 부지런한 사람 되기, 일부러 바쁘게 살았는데 이번 공연 통해서 부지런한 사람 된 것 같다
- 다음 공연진에게 : 연출진은 연출과 캐스트 사이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연습 분위기는 첫 주에 형성된다 *, 연습 시간 매일 계획을 해야겠다, 끝나는 시간 늦춰가면서 연습하는 건 별로다
- 캐스트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해주면 좋겠다, 작품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마음에 안드는 게 있으면 연출진이나 캐스트와 공유할 것!
- 스텝은 시간 잘 지켜주면 좋겠다
- 서운한 점: 너무 만만하게 보았다

영출

- 조연출이라는 자리만 보조다, 뭔가 자기 욕심 얘기할 때 조연출은 연출의 대변인인 것 같다, 어디에서도 메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연출이 바라는 위치가 뭔지 알고 따라주면 좋겠다 (공동연출인지, 조연출인지)
- 연출이 부탁한 스텝적인 일을 잘 못한 것 같다, 스텝 리더의 역할을 잘 못해준 것 같다, 스텝 일정 체크를 못했다, 영현이? 영출이? 기획?

*순간 너무 리더가 많은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한 명이 맡아서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의소분 감독, 조명 감독을 뽑아야 될 것 같다, 명확한 스텝 총괄이 필요하다!

연출 (합평회에서 공연진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

- 캐스트들이 행복한지 살피고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스텝에게 신경 못 써준 게 너무 미안하고 아쉽다, 다음 연출은 스텝들도 신경써주기!
- 각 스텝의 리더를 만들기!